

대학 ‘교양한문’ 강의에 대한 새로운 모색

이은봉

- I. 들어가며
- II. 디지털 문명과 신자유주의 시대 학문
- III. 고전의 현대적 해석과 자기화 과정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한문’과 같은 한문 과목은 고루하고 힘든 수업이라는 인식 탓에 인기 없는 과목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다행인 것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인천대학교의 교양 강좌는 폐강 과목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좌 수를 늘리지 않아 언제나 120명 대형 강좌의 정원이 꽉 찬다. 물론 신청자 대부분은 ‘교양한문’을 1차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인기가 있는 교양 강의 수강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취업이나 인문 소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2차, 3차로 선택한 과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천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대학 교양한문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를 진행한 심호남은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며 냉혹한 적자생존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전통의 계승과 발전’ 같은 가치는 빛을 바라지 오래라고 현 대학교육을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전공과 교양을 막론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 당장 학생에게 인기 없는 과목은 뒤로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한자나 한문을 고리타분한 것,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교양 교과 과정 내 한문 영역의 근간을 흔들기 까지 한다고 했다.¹⁾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지방대학부터 시작해 이제는 수도권 대학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교양한문’도 학생들의 니즈(needs)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부상되면서 한문이 아닌 실용 한자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²⁾가 있었고,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2004년부터 한자 능력을

1) 심호남, 「대학 교양한문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교양학연구』 16,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9쪽.

2) 박영호는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에 개설된 교양한문 과목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용한자 수요의 확대를

졸업요건에 포함하기도 했고, 중앙대학교는 2011년 입생학생부터 계열별 한자 자격증 취득을 졸업요건으로 삼는 등 한자 교육을 강조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없애거나 단과대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추세다.³⁾

이후 한문과 인성교육을 결합한 수업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교수자는 아직도 ‘사자소학’이나 ‘여사서’ 같은 텍스트를 쓰며 충성과 효도, 정절 같은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⁴⁾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안순태는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논문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의 인성교육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에서의 인성 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식적인 사고로 대처하도록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핵심⁵⁾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세미나 강좌를 예시로 들었다. 안순태는 『논어』구절들을 주제별로 편집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구절을 자유롭게 논평할 수 있는 세미나 수업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해서 교양한문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보여주었다.⁶⁾

이후에도 많은 대학에서 교양한문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새해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서강대학교 ‘한문의 이해’ 수업 사례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문 교육이 교강사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는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⁷⁾ 그리고 이승용은 「대학 교양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수업에서 실제 강의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사성어의 풀이와 한문독해’와 ‘원전자료와 영상

지적하였고, 김진경은 고려대학교가 2004년부터 졸업 자격을 위한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을 시행하면서 실용성 강한 한자 수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지적하고 한문 원전을 통해 고전이 지닌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교수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손예철은 대학의 한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안의 개선책을 언급하였고, 신현규는 중앙대학교 한문 과목 축소를 거론하며 ‘한자교육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한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상봉은 부산대와 인제대의 교양한문 수업 사례를 통해 수요자 중심 즉, 한문보다는 실용한자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수법 및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용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한문학』 27, 동방한문학회, 2004., 김진경, 「대학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 방안」, 『한문고전연구』 1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손예철, 「대학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개선책」, 『중국문화연구』 16,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신현규, 「대학에서 한자교육,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양논총』 4, 중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11., 이상봉, 「교양한문수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한자한문교육』 28, 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3) 심호남, 앞의 논문, 9쪽.

4) 위의 논문, 26쪽.

5) 윤근혁,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 <오마이뉴스>, 2015. 7. 27.

6) 안순태,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 『한문교육연구』 48,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7) 한새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자한문교육』 4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매체를 활용한 역사류 한문의 수업'을 예시로 '교양한문'의 운영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실제 평가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한문 능력과 수준의 편차를 고려한 수업 운영과 강의식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⁸⁾ 이들 연구의 특이한 사항은 '교양한문' 수강생 중 외국인 학생이 비율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들면서 이들을 위한 수준별 한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위 명문대라 일컬어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취직 시험과 같은 실용적 목적 위주로 한문 교육이 흘러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학의 '교양한문' 교육은 한문 독해력 배양과 인문학적 교양 증진을 근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⁹⁾도 있다. 특히 송혁기는 변화의 틈에 한문 교육은 첫째, '교양한문', '실용한자' 등의 과목을 넘어서 한문 고전에 초점을 맞춘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설계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글쓰기,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 한문 고전의 활용 가능성을 엿보아야 하며, 셋째, 융합이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에, 한문 고전이야말로 융합적 지식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하지만 이러한 한문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은 대부분 서울 소재 명문 대학이며,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던 한문 교육도 최근 수강생 부족으로 개설 강좌 수가 줄어들고 있어 융합과목으로의 변신이 시급하다고 한다.¹¹⁾ 이에 본고는 '교양한문' 강의에서 한문 강독과 글쓰기를 융합한 수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자는 코로나 19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20년 1학기부터 '교양한문' 강의에 변화를 주었다. 수강 인원이 많은 대형 강좌이기 때문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였다. 동영상은 대면 수업과 같이 강의실에서 강의한 수업을 녹화하여 현장감을 주었고, 각 영상에는 자막을 달아 학습자의 이해를 높였다. 동영상 강의 장점은 시청 시간에 제약이 없고, 반복 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했는지? 궁금한 것은 없는지?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체 강의를 세 챕터로 구성하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문과 동양고전', '학문', '정치'를 소재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을 적어 내도록 했다.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에세이는 조별 합평을 통해 서로의 글을 읽고 평가해 각 조에서 가장 잘 쓴 글을 선정해 발표하게 하였다.

8) 이승용, 「대학 교양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회, 2021.
 9) 강민호, 「서울대학교 교양한문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서울대), 송혁기,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管見」, 『한문교육연구』 48,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고려대), 장진엽, 「대학 교양한문 수업에서의 '능동적 고전 읽기' 지도 사례 검토」, 『한자한문교육』 5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1.(연세대).
 10) 송혁기, 앞의 논문, 40~41쪽.
 11) 심호남, 앞의 논문, 25쪽.

수업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자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연구자들과 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인기는 한때의 유행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하지만 고전은 그렇지 않다. 당장 인기가 없다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없앨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본고는 디지털 문명의 발달과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대 속 학생들이 학문을 대하는 자세를 비판하고, 한문 고전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와 에세이를 통한 자기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다.

II. 디지털 문명과 신자유주의 시대 학문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의 보급으로 세상은 급변했고, 학생들이 학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지식은 이제 손바닥만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것이 되었다. 간단한 조작 몇 번으로 세계 모든 지식이 손바닥에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누구도 이제 지식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자기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자기화란 『논어』 「학이」 편에 나오는 “배우고 시도 때도 없이 배운 것을 익히(學而時習之)”는 것이다. 학문의 한자가 ‘學文’이 아닌 ‘學問’인 것도 결국 배운 것을 끊임없이 물어 자기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학문은 물을 시간을 갖지 않고 스마트폰 지식만을 꺼내 사용하려고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기의 사용 때문인지 소위 MZ세대라 일컬어지는 학생들은 긴 글을 읽지 못한다. 임흥택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스압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 바람”이라는 인터넷 댓글을 소개하며 긴 글을 읽지 못하는 90년대생의 특징을 말한다. ‘스압’이란 ‘스크롤 압박’의 준말로써, 주로 온라인 게시물을 볼 때 스크롤 바가 짧아질 정도로 글이 길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다. 그러니 세 줄로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¹²⁾ 하지만 작가는 이를 단순히 젊은 90년대생들이 게으르다는 증거라든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의 어리석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존 출판물의 선형적 방식과 온라인 게시물의 비선형적 방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선형적 읽기 시대에 긴 글을 내려가면서 읽어주는 참을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예를 들어, 이들은 긴 글을 읽는 데 투자할 시간에 여러 인터넷 기사와 그곳에서

12) 임흥택, 『90년생이 온다』, 웨일북, 2019, 82쪽.

파생된 링크를 넘나들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 대비 회수’라는 경제학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들은 단일 글에 10분 이상 투자할 리가 없다.¹³⁾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성비이다. 짧은 시간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상에는 다양한 텍스트를 요약·발췌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블로그가 활성화된 지 오래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텍스트를 찾아 읽기보다는 제일 먼저 텍스트가 요약된 인터넷 사이트부터 찾는다. 가성비적 측면으로만 보면 최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요약해준 자료는 내 것이 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개의치 않는다.

게다가 인터넷의 비선형적 읽기 방식은 텍스트를 이리저리 건너뛰며 관심 있는 정보만 대충 읽는다. 오랫동안 웹 페이지 디자인 컨설턴트로 일했고 1990년대부터 온라인에서 읽기에 대해 연구해온 제이콥 닐슨은 2006년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시선 추적 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실험의 참가자 대다수는 문서를 재빨리 훑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대략 알파벳 F의 형태를 띠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문서의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줄까지는 끝까지 살펴보다가 이후 시선은 약간 아래로 떨어지고 몇 줄 더 가서는 가운데 정도까지만 재빨리 살핀다는 것이다.¹⁴⁾ 또한 하이퍼링크된 인터넷 텍스트는 단순히 관련 보조 자료의 위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료들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간다.¹⁵⁾ 더욱이 나의 관심사로 알고리즘된 인터넷 정보들은 관심 있는 것들만 창에 띄워 보여주기 때문에 사고를 더욱 편협하게 만든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은 숲과 나무를 모두 볼 것 같은 착각을 심어 주지만 숲은커녕 나무조차 보지 못하게 한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우리는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기억할 뿐, 정보를 자기화해 지식으로 기억하지는 않게 되었다.

경제환경의 변화 또한 우리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켰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치가나 관료, 그리고 학자들은 구미 열강의 주류 경제체제, 즉 신자유주의 체제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열을 올렸고, 재빨리 기업경쟁력 제고, 정리해고, 아웃소싱, 비정규 임시직, 선진금융기법, 무한경쟁 등으로 한국 사회를 탈바꿈시켰다. 교육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의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최소한의 평등권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마저도 차등화된 자본의 소유 여부

13) 위의 책, 82~83쪽.

14) 니콜라스 카 지음, 최지향 옮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람출판, 2020, 222~223쪽.

15) 위의 책, 154쪽.

에 따라 차등화됨으로써 빈곤층 자녀의 교육권이 박탈당하게 되었다. 교육의 상품화,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 교육도 시장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¹⁶⁾ 교육의 시장화가 가장 빠르게 드러난 곳은 대학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대학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시장의 원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헨리 지루는 『일회용 청년』이라는 책에서 요즘은 취업 스펙으로 학위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심지어 대학의 사명마저 기업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변화하고, 학생들은 소비자로 규정된다고 하면서 대학은 더 이상 투쟁의 거점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학력 공장이 되었다고 미국의 교육을 비판했다.¹⁷⁾ 하지만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사학의 이사장인 재벌 총수의 유명한 주장 - “대학이 교육의 장이라는 건 헛소리다. 직업교육소다!” - 은 한국 대학의 현실을 외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⁸⁾

소위 취업이 잘된다는 대학과 학과의 쓸림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문과여서 죄송합니다’의 준말인 ‘문송합니다’도 고전이 되어버렸다. ‘언제까지 문송하게 할 건가’라는 아래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SK하이닉스 같은 IT 대기업에서 신입 동기가 한자리에 모이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문과 출신들이 전국 각지 대학에서 온 이공계 출신 동기들을 보면 ‘문송이들만 죽어라 고생해 입사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한다. 신입 직원 중 이공계 비중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이공계 출신들은 전공 점수 외에는 별다른 스펙이 없고 필기시험 커트라인 점수도 훨씬 낮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직군은 아예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곳도 많다.¹⁹⁾

실제로 이 기사에 의하면 이공계 개발자와 문송이 비개발자 사이에는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 있고, 연봉 격차도 수천만 원씩 벌어진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청춘’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놓았나?」라는 글을 쓴 고봉준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인의 욕망을 경제적 가치에 정향시킨다. 그리하여 이 통치의 메커니즘에서 개인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본화 즉 ‘능력자본’의 형태로 투자함으로써 삶 자체를 1인 기업화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이 자신을 ‘기업’으로 이해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자

16) 송현·안관수, 「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 『디지털융복합연구』 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785쪽.

17) 헨리 지루 지음, 심성보·윤석규 옮김, 『일회용 청년』, 킹콩북, 2015, 118~119쪽.

18) 고봉준, 「신자유주의는 ‘청춘’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후마니타스포럼』 제2권 2호, 후마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2016, 11쪽.

19) 조형래, ‘언제까지 문송하게 할 건가’, 〈조선일보〉, 2022. 05. 14.

신의 상품 가치를 증명하거나 증대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²⁰⁾ 모든 능력을 자본화하여 삶 자체를 1인 기업화 하는 학생들은 진학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1인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은 바로 자신이고, 시장에 팔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토익이나 기술 자격증과같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도 안 되고, 오랜 시간 투자해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인문학 공부를 할 학생은 없을 것이다.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 이런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창의적 사고라고 하면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대학생 누구도 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 눈치다.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꼭 인문학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취업에 도움이 될 알파한 정보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정답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고,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은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는 논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요약·발췌해주는 학원과 인터넷 사이트가 유용했다.

긴 텍스트를 읽고, 비판하고, 생각하고 이를 글로 정리하여 자신의 학문을 만드는 공부는 이미 올드한 것이 된 지 오래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도 드물겠지만 안다고 해도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을 1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잘 팔리는 물건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문학 공부는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문자와 함께 발전했다. 문자는 단순히 읽고 쓰는 수단의 지식 소비뿐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이때 지식 생산은 곧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 학습이 최고의 높이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도 글쓰기는 필수 요건이다. 그 이유는 글을 쓰는 능력이 곧 생각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 몇몇 대학들이 읽고 토론하고 쓰는 세미나형 강좌²¹⁾를 만드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고, 이것이 미래 대학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이들 학교는 생각하고 있다.

20) 고봉준, 앞의 논문, 13쪽.

21) 서울대 '소그룹 고전 원전 읽기', 동국대 '세계 명작 세미나', 서강대 '동서 고전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고전 명저 북클럽' 등

Ⅲ. 고전의 현대적 해석과 자기화 과정

인천대학교 ‘교양한문’ 강의의 주 텍스트는 『논어』다. 대개 대학에서 교양으로 열리는 한문 수업은 경서의 유명한 구절을 따로 떼어 강독하는 것과 달리 본 수업은 『논어』 제1편인 「학이」부터 「위정」, 「팔일」, 「이인」까지 순서대로 원문에 독음을 달아 읽고, 아래는 해석과 해설을 붙여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유명한 구절을 따로 떼어 강독자료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가능하면 『논어』의 앞뒤 문장을 통해 대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각 편의 전체 문장을 읽으면서 현대적 해석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고 시대와 괴리되는 것을 스스로 찾아 비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업이 끝나고도 뒤편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함이 크다.

한자 세대가 아닌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문장을 읽히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강의 전반부에는 주로 한자의 생성원리를 통해 한자와 친해지게 했다. 과거 학습법처럼 여러 낱글자를 무조건 외우게 시키기보다는 글자 하나, 하나에 스토리를 만들어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한자의 制字 원리를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好(좋을 호)’라는 글자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어 좋은 것이 아니라 여성 특히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𠂔’과 자식을 표현한 ‘子’이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로 자식을 품에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乳(젖)’을 따다 ‘母(어미 모)’가 만들어졌고, 어머니가 매일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해서 ‘每(매양 매)’가 생겼다. 그리고 매일 물이 흘러 들어가서 ‘海(바다 해)’가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가르쳐 한자를 재미있게 익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했다.

본격적으로 『논어』 강독을 하기 전, 배경 지식을 위해 유학의 道通을 통한 공자 이전의 역사도 가르쳤다. 왜냐하면 공자가 살던 시대부터 그 이전의 역사를 알아야 『논어』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임금의 善政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정치를 ‘政(정사 정)’이라는 글자를 통해 설명했다. ‘政’은 ‘바를 정(正)’과 ‘칠 복(女)’이 결합한 글자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쳐서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때 바르지 못한 사람을 때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때리는 주체를 위정자로 보지만 진정한 정치는 때리는 주체가 위정자가 아니라 백성이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위정자를 백성이 쳐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는 언제나 民을 위해야 하며, 요임금이 이러한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격양가>를 부르며 요임금을 칭송했던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요임금의 愛民을 본받으려고 했고, 이것은 『논어』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義]를 생각해라(見利思義)²²⁾, ‘가난한 사람을 두루

22) 『논어』 「현문」 13. 曰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 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

도와주되, 부유한 사람을 계속 대주지는 않는다(周急不繼富)²³⁾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존 롤스의 ‘정의론’²⁴⁾과 연결해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후 요임금의 천거를 받은 순임금이 부모로부터 받은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통해孝란 무엇인지, 이러한 효는 현재에도 유효한지 고민해보게 했다. 그리고 이 효가 어떻게 정치적 담론으로 변용되는지도 설명했다. 그다음으로 우, 탕, 문, 무, 주공에 이르기까지 성현을 나열하며 공자 이전까지의 역사를 가르쳤다. 특히 『맹자』 「양혜왕장구」 하에 나오는 ‘湯武放伐論’²⁵⁾을 통해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알려주면서 애민의 중요성과 이를 어기면 혁명도 불사하는 유학이 가지는 진보성에 대해 일깨워주었다.

또한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 그리고 『논어』라는 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문답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읽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공자에 대해서는 『논어』 「위정」 4에 나오는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의혹됨이 없었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곧 이치를 알고 따를 수 있었고, 70세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문장을 통해 공자의 생애를 설명했다. 공자의 탄생부터 공자가 15세에 학문의 뜻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50세에 대사구의 직책에 있으면서 했던 어진 정사 등을 통해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쳤다.

孔門十哲²⁶⁾이라 불리는 제자를 소개하고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인 안희, 자공, 자로를 예로 들면서 제자들의 성격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논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학이」 15에서 “자공이 ‘가난한데 아침하지 않으며 부자인데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가난해도 도를 즐길 줄 알고, 부유해도 예를 좋아하는 자만은 못하다’”²⁷⁾고 한 문장은 사실 부유하면서 말도 잘하는 자공과 가난하면서 신중한 안희에 대해 알고 읽으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자공은 선생님께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은 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선생님은 “너도 괜찮지만 가난해도 도를 즐길 줄 아는 안희만은 못하다”고 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자공은 계속해서 『시경』의 ‘如切如磋，如琢如磨’ 구절을 들며 잘난 척을 하고 있었던

矣.

23) 『논어』 「용야」 3. 子曰 赤之適齊也，乘肥馬，衣輕裘。吾聞之也，君子周急不繼富。

24)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200쪽.)

25) 『맹자』 「양혜왕장구」 하 8. 齊宣王問曰 湯放桀，武王伐紂，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曰 臣弑其君可乎？ 曰 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未聞弑君也。

26) 『논어』 「선진」 2. 德行，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言語，宰我子貢。政事，冉有季路。文學，子游子夏。

27) 『논어』 「학이」 15. 子貢曰 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 子曰 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

것이다. 이렇듯 제자들과 그 대화의 상황을 알면 『논어』는 훨씬 재밌어진다.

이후 「학이」부터 시작되는 『논어』의 문장은 낱글자, 해석 방법, 그 안에 들어 있는 철학은 물론 현대적 의미까지도 설명해 주었다. 강독 수업이 아니라면 절대 읽지 않았을, 읽는다 해도 번역본으로 스토리만 취했을 『논어』를 꼼꼼히 읽으며 한문도 익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했다. 특히 『논어』의 시작이자 「학이」편의 첫 문장인 “배우고 배운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²⁸⁾를 통해 공자가 제자들 아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군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본 연구자는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으라고 하면 이 문장을 든다. 그 이유는 공부의 목적은 좋은 대학이나 취업 또는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삶의 태도, 즉 삶을 살아가는 법칙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 군자가 돼라는 것이지만 군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남이 만든 기준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체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것이 대학 교양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

교양교육을 흔히 ‘liberal education’이라고 한다. ‘자유’를 위한 교육은 멀리는 그리스에서 노예가 아닌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서 시작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애초에 ‘생업’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²⁹⁾ 바꿔 말하면 교양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고, 타자가 만든 기준에 의해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말이다. 사실 현재 우리의 삶은 대학입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이 만든 기준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나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성을 내는 소인의 삶을 살고 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란 liberal한 삶을 사는 사람일 것이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물어 나의 학문을 만들고, 이러한 학문을 알아주는 벗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히 文[text]만을 외우고 공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시도 때도 없이 익히는 問[질문]에 있다. 공부[學問]란 결국 기존의 텍스트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끊임없이 물어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이다. 공부가 기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공부는 기쁨을

28) 『논어』 「학이」 1. 子曰 學而時習之，不亦說乎！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29) 송혁기, 앞의 논문, 26쪽.

주고 있는가? 신자유주의와 경기 불황 등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공부는 그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스펙 쌓기로 추락했다. 배운 것을 묻기는커녕 배운 것을 기억도 못하고 시험의 결과만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창의성마저도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논어』 「위정」에 나오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면 스승 삼을 만하다”³⁰⁾고 한 것 또한 배우고 묻는 學問의 근본에 대한 말이다. 조선 후기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은 「초정집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장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論者들은 반드시 ‘法古’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침내 본뜨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 그렇다면 ‘創新’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는 괴벽하고 허황되게 문장을 지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 아! 소위 ‘법고’를 한다는 사람은 옛 자취에만 얽매이는 것이 병통이고, ‘창신’을 한다는 사람은 常道에서 벗어나는 게 걱정거리이다. 진실로 ‘법고’를 하면서도 변통할 줄 알고 ‘창신’을 하면서도 능히 典雅하다면, 요즈음의 글이 바로 옛글인 것이다.³¹⁾

옛것만을 답습한다면 심하게는 표절이 될 것이고, 새것만을 추구한다면 괴상해질 것이다. 그래서 연암은 “진실로 ‘법고’를 하면서도 변통할 줄 알고 ‘창신’을 하면서도 능히 전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법고창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학문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알아주는 벗, 즉 同志가 있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은 없을 것이다. 나의 학문과 이것을 알아주는 동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으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적 삶이 있어야 국가나 자본 권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겨 진정한 자유인도 군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은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 대중을 지배한다.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노모스[법·관습] 본래의 ‘법적 힘’이란 노모스가 생명을 내버림으로써 생명을 자신의 추방령 속에 끌어안는다는 데 있다”³²⁾고 했다. 즉 추방은 권력에 더욱 매달리게 하는 하나의 통치술이다. 대중들을 삶의 한계지대에 방치함으로써 더 큰 지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한계지대의 대중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가와 자본에 매달리게 되고, 국가와 자

30) 『논어』 「위정」 11. 子曰 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31)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초정집서』, 『국역연암집』1, 민족문화추진회, 2005, 6~7쪽.

32)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80쪽.

본은 이런 ‘공포에서 나온 이익’을 챙긴다.³³⁾ 그러나 스피노자는 “대중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경우 대중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³⁴⁾고 했다. 대중이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면 공자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대중은 굳이 국가나 자본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대중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2008년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장기하의 노래는 백수로 사는 청춘의 불안을 노래에 담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장기하는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이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로 시작하는 <별일 없이 산다>는 노래를 선보였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싸구려 커피> 때 불안했던 백수와 달리 삶이 즐겁고, 재밌고, 신난다는 것이다. ‘니(너)’를 ‘국가’ 또는 ‘자본’으로 본다면 매우 도발적 노래임에 틀림없다. 스피노자가 말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대중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즐거운 백수는 더 이상 삶의 불안을 빌미로 국가나 자본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교양한문 수업은 한문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 현대와 고전 그리고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넘나들며 『논어』의 문장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강의를 했다. 이후 「위정」편에서도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지 논하면서, 이를 우리의 정치와 비교해 보게 했다.

이처럼 전체 강의를 총 세 챕터로 구성하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문과 동양고전’, ‘학문’, ‘정치’를 화제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 배운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하여 자기화시켰다. 에세이는 단순한 수업에 대한 감상이 아닌 각 챕터를 배우고 느껴지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화제를 좁혀 구체적인 주제문을 만들어 글을 쓰게 하였다. 특히 ‘학문’과 ‘정치’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리고 해결책은 가능한 수업시간에 배운 것에서 찾게 하였다.³⁵⁾ 이러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 설문과 강의 감상문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과제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수업 내용에 이해도가 상승했다”

“평소 글을 쓰는 시간이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따로 자리를 잡아 몇 시간 또는 몇

33) 고병권, 『추방과 탈주』, 그린비, 2009, 26쪽.

34) B. 스피노자 지음,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1, 256쪽.

35) 자세한 에세이 쓰기 방법은 《부록》1에 첨부함.

주씩 글 쓰는 시간을 따로 가지며 나의 생각을 둘러보고 고민하면서 내 두뇌를 유연하게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은 경험이었다.”

“전에는 글쓰기가 두려웠는데 이번 세 편의 글쓰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글쓰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사색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져 한층 더 성숙해진 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 나의 생각을 깊게 나열해 본 적도 딱히 없었는데 교양한문 수업을 들으면서 공자의 논어를 통해 삶의 진리에 대해 탐구하고, 또 나의 생각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다.”³⁶⁾

이외에도 21년도 2학기 강의평가 서술형 문항에도 “공자와 주변의 일상을 연관시켜 자신만의 생각을 적는 에세이 쓰기를 하면서 공자의 사상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배우며,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할 수 있었다!” 등과 같이 에세이 쓰기를 통해 자기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만족하지는 않았다. 에세이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문을 더 배웠으면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해오면 조별 에세이 합평 시간을 주어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게 했다.³⁷⁾

코로나 19로 2020년 1학기부터 교양한문 수업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여 지금과 같이 학생의 요구와 교수의 요구가 어우러질 수 있기까지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2021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고 있다.³⁸⁾ 다행인 것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이런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의 제목이 올드하고 딱딱해 학생들의 초기 선택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 학생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며 에세이를 일일이 첨삭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학교도 이런 방식의 강의를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어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溫故而知新’이라고 했다. 수요가 없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한문 강독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대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은 바꿀 필요는 있다.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요약·발췌된 텍스트에 익숙하고, 고전에 대한 관심

36) 이은봉, ‘연구결과보고서’, 《2021-2학기 상호작용 기반 온라인 교수학습전략 연구과제》, 인천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 2021. 12.

37) “후배들과 에세이 합평을 하면서 선배인 내가 글을 제일 못 쓴다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의 에세이도 볼 수 있어서 나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에세이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위의 보고서.)

38) “한문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덕에 논어를 계속 읽고 싶어졌습니다.”, “진정한 강의가 간절한 요즘이라, 교수님의 다른 강의도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수업이 그저 대학교 수업이 아니라 현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꼭 들으면 좋은 수업이라고 많이 느꼈다.” (21학년 2학기 ‘교양한문’ 3차 과제 수업 감상문 중에서)

은 날로 줄어들고, 더욱이 한자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요즘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강독을 통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그 안의 숨은 뜻들을 찾고, 이것의 현대적 의미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의 중심에는 글쓰기 교육 통한 자기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화 과정이 곧 미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은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교육을 상품화하여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문 탐구라는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취업을 위한 훈련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양한문’과 같은 한문 과목은 고루하고 힘든 수업이라는 인식 탓에 인기 없는 과목이 된 지 오래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방대학부터 시작해 수도권 대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때문에 관련 과목 교수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교양한문’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한문 교육을 실용 한자 중심으로 바꾸었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수요가 없다고 우리의 전통 학문인 학문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까닭에 최근 ‘교양한문’ 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 방향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여건상 이러한 개선 방향들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오다가 코로나 19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교양한문’을 통한 융합 교육을 제안한 바 있어, 본 연구자는 학문 강독과 글쓰기를 융합한 교육을 통해 한문도 익히고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학습자 스스로 성찰하는 수업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 결과 학습자의 요구와 교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강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에 ‘교양한문’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디지털 문명과 신자유주의 시대 학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변화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한문 고전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와 에세이를 통한 자기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긴 텍스트를 읽고, 비판하고, 생각하고 이를 글로 정리하여 자신의 학문으로 만드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임에도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 자신을 1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잘 팔리는 물건을 짧은 시간에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문학 공부는 소위 가성비가 안 좋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문자와 함께 발전했고, 문

자는 지식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했다. 이때 지식 생산은 생각하는 능력 곧 글쓰기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문 강독을 통해 한자는 글자마다 스토리를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했으며, 문장을 배우기 전에는 배경 지식을 알려주어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했다. 그리고 문장 속 철학적 의미들은 동양과 서양, 현대와 고전 그리고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넘나들며 설명하고, 이를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연관해 고민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에세이를 작성하게 해 배운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해 자기화시켰다. 다행인 것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이런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의 제목이 올드하고 딱딱해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 학생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며 에세이를 일일이 첨삭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물론 교수자도 한문만이 아니라 동과 서양, 현대와 고전을 넘나드는 cross-text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강의보다는 몇 배 더 공력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溫故而知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대가 변했다면 변화에 맞출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본질까지 버릴 수는 없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딱딱한 교과목 제목은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제목으로 바꾸고, 한문 강독은 유지하되 한자는 가능하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많은 문장을 가르치기 보다는 한 문장이라도 그 안의 의미들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에세이 쓰기를 통해 자기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학교 당국도 시장의 원리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정 학생 수 배정과 평가 방식에 변화를 주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대학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록》 1. 에세이 쓰기 방법

1. 에세이란?

- 대학 교육에서 말하는 에세이란 손 가는 대로 쓰는 수필이 아니라 학술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글쓰기다.
- 따라서 논리적 글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와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책(주장)이 들어 있어야 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글을 써야 한다.
- '교양한문'에서 추구하는 에세이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나 해결책을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또는 <논어>에서 찾아 쓰는 것이다.

2. 주제 정하기

무엇을 써야 할까?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하다 보면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떠오를 것이다

- 쓸데 없는 생각에서 쓸데 있는 생각으로
 - 비판적 사고
 - 시의성 있는 생각
 -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심

- 교양한문 첫 번째 에세이의 소재는 '한문과 동양고전'이고, 두 번째 에세이 소재는 '학문' 그리고 세 번째 에세이의 소재는 '정치'다.
- 에세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 첫 번째 에세이 소재인 '한문과 동양고전'으로 예를 든다면, '한문과 동양고전'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브레인 스토밍'이나 '마인드 맵핑'을 해보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한문과 동양고전'을 비판적 시각에서 봐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주제가 초점화된다. 특히,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할 유가의 혁명성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한문, 동양고전을 떠올리면 올드한 것, 그래서 보수적이고 고루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유가의 근본 의미, 특히 공자가 꿈꾸던 삶을 고민하다 보면 한문과 동양고전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 수업을 잘 듣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한문과 동양고전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좋은 주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3. 주제문 작성하기

- 주제는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쓰는 것이다. 짧은 글일수록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주제가 정해졌다면 주제문을 써야 하는데, 주제문은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애매하거나 모호한 주제문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다.

문장이 모여 단락을, 단락이 모여 한 편의 글을 만든다

- 생각을 분명히 해야 문장이 명확해진다. 주제와 대상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모호해진다.
- 워드프로세서를 기준으로 두 줄을 꽉 채우거나 넘긴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 한 문장에 술어가 셋 이상이면 문장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표현하려고 하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주어와 술어를 1:1로 호응시켜야 비문이 안 생긴다.)
- 단락(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담아 낸 것이다.
- 한 편의 글에 같은 문장이 있어선 안 되는 것처럼, 한 편의 글에 같은 단락이 있으면 안 된다.

➤ 문단 나누기 표시는 각 문단의 첫 줄 들어 쓰기로 한다. 일부러 한 줄을 비워 쓸 필요는 없다. 한 단락(문단)의 길이는 대개 5~6줄 내외로 쓴다.

- 도입부 첫 단락과 결론 부분의 마지막 단락을 제외한 단락, 즉 본론에 속한 단락들은 길이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 단락의 길이가 비슷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 단락마다 하나의 키워드(중심 문장)를 설정하면 단락의 분량을 맞출 수 있다.
- 단락 수가 정해지고 각 단락의 키워드를 정했다면, 분량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각 단락의 키워드가 뼈대라면 그 뼈대를 중심으로 '살'을 붙여야 하는데, 설명이나 묘사, 사례, 인용 등이 글의 살이다.

4. 개요 작성

- '생각하지 않았다면 쓰지 말고, 쓰고 나서 고치지 않았다면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 글쓰기의 철칙 중 하나다.
- 여기서 생각하기가 바로 개요 짜기이다.
- 글 전체의 개요(윤곽)를 구성할 때는 글 전체의 중심 내용, 즉 주제문 다음에 그 주제문과 관련된 개별 사실들을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주제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구조로 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개요는 나중에 글쓰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글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삼단 구조를 가진다

- 글쓰기 기본 개요 -

주제문 :

제목 :

1. 서론

- ▶ 도입
- ▶ 문제제기

2. 본론

- ▶ 원인분석
- ▶ 해결방안 / 대안

3. 결론

- ▶ 요약 / 제안